

탄핵 정국, 부산 앞바다 도착한 대왕고래 시추선

등록 2024.12.09 10:32:39



[부산=뉴스시스] 하경민 기자 = '대왕고래'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, 첫 시추를 진행할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'웨스트 카펠라호'가 9일 오전 부산 영도구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.

길이 228m, 폭 42m, 높이 19m 규모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한 뒤 이달 중순 시추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. 2024.12.09. yulnetphoto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